

조선일보 안병훈 부사장 수상소감

신문발행부수공사는 신문사의 당연한 의무



▲ 민병준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조선일보 안병훈 부사장

조선일보는 중앙일간지로서는 유일하게, 1994년 한국 ABC협회의 최초 신문부수공사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행부수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ABC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전국광고주대회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감사패를 조선일보에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광고주 여러분들에 대한 의

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1989년 한국ABC협회가 창립할 때부터 창립회원으로 참여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 1993년, 국내신문사로는 처음으로 신문발행부수공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광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던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국내 주요 일간지로는 유일하게 신문발행부수공사를 받아왔습니다.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하고 신문을 선택할 때 그 핵심정보인 신문부수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문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일보뿐 아니라,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같이 공사를 받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유료 부수의 공개가 유보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광고주에 대한 신문사의 의무에 한단계 진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동안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신문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앞으로도 조선일보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광고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광고주협회와 광고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섭 한림대 교수 수상소감

ABC공사 받는 신문 늘어난 것은 역사에 남을 일



▲ 민병준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신인섭 한림대 교수

신인섭 교수는 40여 년 동안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단체 등에서 활약하며 우리 나라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각종 국제광고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여 한국 광고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학문적으로는 후진 양성 및 한국 광고사 정립에 공헌하였다.

제게는 오늘처럼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한 잊지 못할 날은 없습니다.

두달 남짓 지나 새해가 되면 제 나이가 70과 80의 꼭 중간에 이르고, 인생의 절반이 되는 38년을 광고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38년 가운데 6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기간은 제가 1989년에 새로 창설된 한국ABC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이었습니다.

13년의 군대생활, 그리고 민간인이 된 뒤에 여러 상과 감사장도 많이 받았습니만, 오늘 받는 이 감사패는 제게 가장 기뻐뵈더 뜻깊은 상패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일보사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신문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즉 자사 부수를 제3의 기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인증을 받은 뒤, 공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전 저는 소중한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다름 아닌 한국ABC협회의 <신문부수 공사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선일보의 발행, 발송, 유료 부수와, 이번에 새로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발행, 발송 부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두 신문의 유료 부수는 내년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는 100년 넘는 한국의 신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광고역사뿐 아니라, 신문과 언론의 역사에 기록될 중요성을 지닌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성숙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감사패가 뜻깊다는 말씀을 올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 때에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